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의 발단과
〈신 단계론論新階段〉에 대하여
항일전쟁기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관한 재고 I

김 회 준*

〈目 次〉

- | | |
|------------------------------------|---------------|
| 一. 머릿말 | 四. ‘민족형식’의 개념 |
| 二.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 발단
에 관한 통설과 이설 | 五. 논쟁발생의 동인 |
| 三. 毛澤東 〈신단계론〉의 내용과
논리 | 六. 논쟁의 발생 시기 |
| | 七. 맺음말 |

一. 머릿말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이하 민족형식 논쟁)은 “신문예가 생긴 이래의 일차 종합 검토”¹⁾라고 불리울 정도로 광범위한 논점을 두고서 당시 대부분의 문인이 참가하여 수년간에 걸쳐 지속된 항일전쟁기 최대의 문예논쟁이다.²⁾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것

* 高麗大學校 中文科 博士課程

- 1) 李何林, 〈由‘七·七’到延安文藝座談會講話的新文學〉, 李何林 等, 《中國新文學史研究》, (北京: 新建設雜誌社, 1951), 112쪽.
- 2) 이 점에 관해서는 줄고 《중국 항일전쟁시기 ‘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7. 2), 3쪽을 참고하기 바람. 文天行, 《國統區抗戰文學運動史稿》,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1988. 5), 76쪽에 따르면 당시 이 논쟁과 관련한 글은 수백편에 달한다고 하며, 필자 개인의 불완전한 조사만으로도 약 180편을 확인할 수 있었음.

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이는 주로, 민족형식 논쟁이 혼란한 전쟁기에 중국 각지에서 이루어진 데서 연유하는 바 자료의 유실이나 분산 등으로 자료수집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이후 논쟁 참여 당사자들의 정치적 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의 당시 주장에 대한 평가가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민족형식 논쟁이 延安·重慶은 물론 香港·桂林·上海·成都·昆明·晉察冀邊區 등 중국 각지에서 전국적 범위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단지 延安과 重慶의 논쟁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여러 가지 새로운 검토가 시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경하고도 전면적인 검토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민족형식 논쟁에 있어서의 胡風의 역할에 관한 평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형식 논쟁에 관한 불충분한 연구상황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족형식 논쟁의 발단과 毛澤東의 〈신단계론〉에 대한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우선 다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二.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 발단에 관한 통설과 이설

먼저 민족형식 논쟁의 발단과 毛澤東의 〈신단계론〉에 대한 현재까지의 언급 중에서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즉 통설이라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8년 10월 毛澤東 동지는 중국 공산당의 확대 6중전회에서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 中國共產黨在民族戰爭中的地位〉라는 보고(즉 〈신단계론〉)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통속문예 제작의 열기가 막 지나간 때로, 사람들의 구형식 운용에 관한 견해가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상당히 달랐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毛澤東 동지의 보고를 깊이 학습하는 중에 문예계는 곧

민족형식과 관련한 논쟁을 전개하였다.³⁾(王瑤, 上海: 1985)

이때의 토론은 다만 옛형식을 어떻게 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머물렀고 민족적 형식의 창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문제에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1938년 이후 毛澤東은 선후로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신민주주의론〉 등 로작을 발표하여 민족적형식과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등 문제에 대하여 명석하게 천명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토론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⁴⁾(권철·김재봉, 延吉: 1983)

구형식 이용 이 문제는 얼마 후 민족형식의 문제로 바뀌었다. 毛澤東은 1938년 10월 〈신단계론〉을 발표하였는데, ……이로부터 문계에에서는 곧 민족형식의 토론이 전개되었다.⁵⁾(陳炳良, 香港: 1983)

먼저 1938년 10월 毛澤東이 〈신단계론〉의 ‘학습’에 관련된 부분에서 말하기를 … 이는 순수한 정치성의 당무 지시였는데, 공산당의 문공 간부는 곧 교조적으로 민족형식을 문학창작에 요구하였다.⁶⁾(周錦, 臺北: 1983)

이상의 주장은, 민족형식 논쟁은 毛澤東의 〈신단계론〉의 언급을 학습 혹은 추종하는 가운데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와는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민족형식’이란 구호는 毛澤東 동지가 1938년 10월에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일찌기 동년 상반기에 ‘연극민족화話劇民族化’·‘문예민족화文藝中國化’ 등의 문제에 관한 토론 중 이미 ‘민족형식’문제에 접촉하였다.⁸⁾(劉泰隆, 北京: 1981)

[……]1938년부터 1940년까지 활발히 전개된 민족형식 논쟁 [……] 이 논쟁에서 ‘민족형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8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 6기

- 3) 《中國新文學史稿》下, (修訂重版,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5), 374~375쪽.
- 4) 《중국현대문학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3), 439~440쪽.
- 5) 〈從‘文藝大衆化’到‘延安文藝講話’〉, 《現代文學》復刊 第21期, 臺北: 1983. 9, 59~60쪽. 이 글은 비록 臺北에서 발표되었지만 필자가 香港大學 교수라는 점에서 香港지역의 한 견해로 취급하였다.
- 6) 《中國新文學史》, (臺北: 群逸圖書, 1983), 551쪽.
- 7) 이와 같은 견해로는 이들 외에도 劉綏松(《中國新文學史初稿》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444~445쪽)·林志浩(《中國現代文學史》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0, 482~483쪽)·李牧(《三十年代文藝論》, 臺北: 黎明文化, 1977, 102~103쪽) 등 많은 사람들이 있다.
- 8) 〈試談‘民族形式’論爭的評價中的幾個問題〉,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81年 第1輯, 北京, 41쪽.

중앙위원회 제 6차 총회에서 毛澤東의 보고 〈중국공산당의 민족전쟁 중의 지위〉에서 그 용어를 사용한 뒤부터이다. 사실상 논쟁은 그 보고 이전부터 전개되고 있었는데……⁹⁾(전형준, 대구: 1985)

이들의 말은 ‘민족형식’이란 용어 자체는 毛澤東이 가장 먼저 제기하였지만 민족형식 논쟁은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일종의 절충적 의견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현대문학사 저작에서는 논쟁의 과정에 관하여 대개 기간을 1939년에서 1940년으로 잡거나 어떤이는 아예 회피하고 언급을 않는다. ……劉泰隆 동지의 관점은 논쟁의 진전에 대한 파악에 주의한 것으로 가치있는 것이었다. 다만 기간의 상한(1938년 말)을 단정할 것은 논거 파악에 잘못이 있으므로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논쟁의 기간은 마땅히 1939년에서 1941년까지이며 이것이 비교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여긴다.¹⁰⁾(戴少瑤, 重慶: 1982)

30년대 ‘문예대중화’의 제창과 ‘구형식 이용’의 토론·항전 이래 ‘통속문예’의 성행과 ‘현 병에 새 술 넣기 舊瓶裝新酒’의 논쟁·서북西北 극협劇協 문협文協의 ‘연극민족화’ ‘문예중국화’의 제기는 모두 이 ‘민족형식’ 토론의 선도였다. …… ‘민족형식’이란 용어를 문예 문제의 토론에 운용한 것은 1938년 10월 毛澤東이 중공 6기 6중전회에서 〈신단계론〉의 보고를 한 이후였다.¹¹⁾(黃繼持, 香港: 1988)

이들에 따르면 ‘연극민족화’ ‘문예민족화’의 주장은 민족형식 논쟁의 선도이기는 하지만 민족형식 논쟁은 역시 毛澤東의 언급 이후 좀더 분명히 말하

-
- 9) 〈민족형식논쟁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국어문학》 제 9집, 영남중국어문학회, 대구, 1985. 7, 159~160쪽. 전형준은 계속해서 “예컨대, 茅盾의 〈문예대중화문제〉 〈대중화와 구형식 이용〉·林淡秋의 〈항전문학과 대중화 문제〉·老舍의 〈통속문예에 대해 논함〉 등의 글이 그것들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의 이 말은 곧 구형식 이용 토론을 민족형식 논쟁의 첫부분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필자를 포함하는 여타 사람들이 양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본고의 〈논쟁 발생의 동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 10) 〈‘民族形式’論爭再認識〉, 《國統區抗戰文藝研究論文集》, (重慶: 重慶出版社, 1988. 12), 300쪽.
- 11) 〈現代中國文藝的‘民族形式’問題〉, 《文學的傳統與現代》, (香港: 華漢文化事業公司, 1988. 7), 131~132쪽.

자면 1939년에야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인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문제에 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민족형식’이라는 용어를 毛澤東이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① 하나는 毛澤東의 〈신단계론〉 이후 민족형식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고 1939년에야 비로소 민족형식 논쟁이 전개되었다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민족형식 논쟁이 毛澤東의 〈신단계론〉 보고 이전 혹은 그 전후인 1938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③ 나머지 또 하나는 앞의 둘에 대한 일종의 절충으로서 민족형식 문제가 毛澤東의 〈신단계론〉 보고 전후에 이미 제기되기는 했지만 민족형식 논쟁 자체는 1939년부터 비로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주장들이 민족형식 논쟁의 성격에 관한 평가와 관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민족형식 논쟁은 毛澤東이라는 한 개인의 문예에 관한 과제 제시에 의해 시작될 수 있을 만큼 문예 자체의 발전 추세와는 무관한 순전히 문예운동의 차원에서만 시작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毛澤東의 언급은 민족형식 논쟁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든가 또 구형식 이용 문제나 대중화문제 등을 다룸에 있어서 ‘구형식 이용 토론’과 ‘민족형식 논쟁’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등의 사항과 관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민족형식 논쟁의 발생시기와 발생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있었던 毛澤東의 〈신단계론〉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毛澤東의 〈신단계론〉이란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부터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三. 毛澤東 〈신단계론〉의 내용과 논리

1938년 9월 29일에서 11월 6일 사이에 중국공산당은 延安에서 제 6기 제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6중전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기

본적으로는 국공합작을 강조하면서도, 항일전쟁을 부르조아적 민족해방투쟁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항전에 있어 부르조아적 지도자로서 장개석을 높이 평가하고 국민당의 주도권을 인정한 王明 등을 비판하고, 이에 반해 민중의 항일투쟁 역량을 중시하여 항전에 있어 무산계급과 공산당의 주도권을 강조한 毛澤東을 책임자로 하는 중앙정치국의 노선을 승인하는 등의 차후 항전시기 중국공산당의 기본노선이 확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毛澤東은 이 회의를 통하여 소련 유학생 출신으로 코민테른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王明·秦邦憲·王家祥 등의 소위 ‘국제파’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공동구에서의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던 셈이다.¹²⁾ 이 6중전회 기간 중 毛澤東은 중앙정치국을 대표하여 정치보고 및 총결론을 행하였는데, 10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행해진 정치보고는 얼마 후인 동년 11월 25일 《해방解放》 제57기에 〈신단계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중 제 7장 민족전쟁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지위의 〈학습學習〉이라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산당원은 국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이지만 마르크스주의는 반드시 민족형식을 통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 추상적 마르크스주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 마르크스주의만 존재한다. 이른바 구체적 마르크스주의란 곧 민족형식을 통한 마르크스주의이고,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의 구체적 환경의 구체적 투쟁에 응용시킨 것이며 그것을 추상적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한 부분으로서 이 민족과 혈육관계로 맺어진 공산당원이 중국적 특성을 떠나서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마르크스주의일 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그것의 때 표현 중에 중국적 특성을 지니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중국의 특성에 근거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것은 전 당이 시급히 이해해야 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양팔고는 필히 폐지되어야 하고 공허하고 추상적인 곡조는 필히 덜 불려야 하며 교조주의는 반드시 멈추어야 하고, 신선 활발한, 중국 민중이 즐겨 보고 듣는 중국적

12) 이상의 사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龔古今·唐培吉 主編, 〈中國共產黨六屆六中全會, 王明新投降主義基本被克服〉, 《中國抗日戰爭史稿》上, (湖北人民出版社, 1983. 11), 291~299쪽을 참고하기 바람. 당시 王明의 이러한 노선은 코민테른의 정책을 그대로 추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J. Degras 편, 윤석인 옮김, 《코민테른과 중국혁명》, (서울: 논장, 1888. 7), 254~257쪽의 1937년 10월 10일 및 1938년 8월의 코민테른의 문건을 참고하기 바람.

풍과 중국기풍으로 이를 대신해야 한다. 국제주의적 내용과 민족형식을 분리시키는 것은 국제주의를 조금도 모르는 자들의 행위로 우리는 양자를 긴밀히 결합시켜야 한다.¹³⁾

여기서 毛澤東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 보편적 진리와 중국혁명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결합에 관한 것이다. 이 점은 후에 이를 해석하여 민족형식 논쟁 중의 과정에서 潘梓年이 “신문화의 민족형식 문제는 바로 과학적 우주관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이 결합된 문제이다”¹⁴⁾라고 말한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르크스주의는 중국의 제상황을 고려하여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사실 毛澤東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주장한 것은 당시 중국의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적응한 필연적 결과였다. 항전 발발 이후 중국 민중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든가 ‘자유’ 따위의 추상적인 이념보다는 구체적인 무기와 지도력을 한층 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 점령구의 중국 민중의 항전행동은 공산당의 지도를 앞질러가고 있었다.¹⁶⁾ 毛澤東은 이

13) 《毛澤東集》第6卷, (香港: 一山圖書, 1976), 261쪽. 본문은 44년판 《毛澤東選集》第5卷(晉察冀日報社)에 실린 것으로, 49년 이후의 각종 판본은 문구상으로 이와 다소간 차이가 있다. 주 15)를 참고하기 바람.

14) 〈民族形式與大衆化〉, 《新華日報》, 1940. 7. 22. 《延安文藝叢書 文藝理論卷》, 高彬 責任編輯,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4), 722쪽.

15)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49년 이후의 《毛澤東選集》에서는 위 인용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놓았다. 즉 “공산당원은 국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이지만 마르크스주의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구체적 특성과 상호 결합하고 민족형식을 통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역량은 바로 그것이 각 나라의 구체적 혁명실천과 연계된다는 것에 있다. 중국공산당에 대해 말하자면 곧,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을 중국의 구체적 환경에 응용할 수 있게끔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한 부분으로서 이 민족과 혈육관계로 맺어진 공산당원이 중국적 특성을 떠나서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마르크스주의일 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에서 구체화하고, 그것의 매 표현 중에 필히 있어야 할 중국적 특성을 지니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중국의 특성에 근거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것은 전 당이 시급히 이해해야 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毛澤東集》第6卷, 香港: 一山圖書, 1975, 261쪽).

16) 宇野重昭 저, 김정화 역, 《중국공산당사》, (서울: 일월서각, 1984. 4), 128쪽 참고.

러한 상황을 증시하여 공산당은 전민족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전의 결정적 역량으로서의 민중을 인정하고, 민중의 자발적 항전 역량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공산당의 영향하에 그들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파가 시급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당시 그에게 항전의 결정적 역량으로서 파악된 전체 인구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은 반봉건(半封建)적 상황하에서 근대적 교육이라고는 거의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들에게 마르크스주의를 보급한다는 것은 극히 지난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와 같이 농민이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의 주요 혁명주체가 되는 현실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기계적 적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毛澤東은 자연히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자신의 독자적 노선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 상술한 바 6중전회의의 정치적 결과였고 이를 나타내 주는 구체적 표현이 곧 ‘국제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이었던 것이다.¹⁷⁾

다시 말해서 毛澤東이 말한 국제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이란 각각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적 특수성에 맞는 실천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가 구사하는 바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일 뿐 문예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 문제와는 다른 범주의 문제인 것이다. “신선 활발한, 중국 민중이 즐겨 보고 듣는 중국작풍과 중국기풍新鮮活潑的, 爲中國老百姓所喜聞樂見的中國作風和中國氣派”라고 한 것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적 실천과정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주장한 또 다른 표현일 따름으로 문예의 중국적 풍격

17) 그의 이러한 생각은, 1940년 1월에 발표된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에서 당시 중국은 신민주주의 혁명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신민주주의 혁명시기의 중국 문화는 신민주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을 갖춘 민족적·대중적·과학적인 반제반봉건의 문화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다 체계화되었다. 여기서 신민주주의 혁명이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으로 반제반봉건을 통하여 민족국가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부르조아혁명에 속하면서도,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농대중이 통일전선을 주도하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부르조아혁명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뜻이다.

을 두고 한 말은 아니며, 또 “양팔고는 필히 폐지되어야 하고 洋八股必須廢止……” 운운한 것도 기실 당시 자신의 반대파이던 ‘국제파’의 견제를 은근히 겨냥한 것에 불과하다.¹⁸⁾ 즉 그의 언급 자체는 문예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주장하는 순전한 정치적 언급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毛澤東의 <신단계론>에서 ‘민족형식’이라는 용어가 문예와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민족형식 논쟁에서 사용된 ‘민족형식’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였는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민족형식 논쟁’이란 어떠한 논쟁이었는데, 이 논쟁과 ‘구형식 이용 토론’과의 구분은 무엇인가라는 등등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물론 이를 통해 논쟁의 발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이 논쟁과 毛澤東의 <신단계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四. ‘민족형식’의 개념

‘민족형식’이란 용어는 사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25년 스탈린이 동방민족대학에서 행한 <동방민족대학의 정치입무를 논함>이라는 연설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사회주의적 내용의 무산계급 문화는 사회주의 건설에 휩쓸려 든 각각의 상이한 민족 중에서 상이한 언어·생활방식 등등에 의거하여 각종 상이한 표현형식과 방법을 취하는 데 이 역시 옳은 것이다. 내용은 무산계급적이고 형식은 민족적인 것——이는 바로 사회주의가 도달해야 하는 전인류의 문화이다. 무산계급문화는 결코 민족문화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민족문화 역시 무산계급문화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다.¹⁹⁾ (강조점은 인용자가 가함)

18) 徐瑜, 《中共文藝政策析論》,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1986), 110쪽.

19) 北京大學 中文系 文藝理論教研室 編, 《文學理論學習資料》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1. 12), 563쪽.

상술한 毛澤東의 언급을 이와 비교해 보면, 스탈린은 여기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무산계급문화와 민족문화의 관계를 논하고 있음에 비해 毛澤東은 나중 자신이 규정한 소위 신민주주의상태에 있는 중국적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그 의도하는 바는 상이하지만, 문구나 논리면에서는 양자가 상당히 유사함을 급방 알 수 있다. 스탈린의 이러한 언급은 이후 민족형식 논쟁 중에 종종 인용 또는 응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족형식 논쟁의 비교적 초기에 발표된 蕭三의 〈시가의 민족형식을 논함〉에서는 “스탈린의 유명한 ‘사회주의적 내용, 민족적 형식의 문화’ 이 말은 우리들 각자 작가·문화 공작자의 금과옥조이다”²⁰⁾ 운운하고 있으며, 羅蘇은 〈논쟁중의 민족형식 ‘중심원천’ 문제〉²¹⁾에서 ‘민족형식’이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앞의 스탈린의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소련에서의 용법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시켰던 것은 아니어서, 예컨대 郭沫若는 〈‘민족형식’ 논의〉에서 “‘민족형식’의 제기는 확실히 소련쪽에서 시사를 얻었다.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내용, 민족적 형식’이란 부르짖음이 있는 적이 있다”라며 민족형식의 제기가 소련의 영향을 받았음은 긍정하면서도, 이하 “그러나……중국에서 제기된 바 ‘민족형식’은 그 뜻이 다소 다르다”²²⁾라면서 ‘민족형식’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나름대로의’라고 말한 것은, 당시 민족형식(혹은 민족형식 문제)에 대하여 어떤 통일된 개념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논쟁의 과정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何其芳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민족형식 이 최근에야 중국에서 제기된 명사의 정의를 아직 확실히

20) 〈論詩歌的民族形式〉, 《文藝戰線》, 第1卷 第5號, 1939. 11. 16. 《文藝戰線·抗戰文學期刊選輯(二)》, 李其林 選編,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243쪽.

21) 〈論爭中的民族形式‘中心源泉’問題〉, 《讀書月報》第2卷 第8期, 1940. 11. 1.

22) 〈‘民族形式’商兌〉, 《大公報》, 重慶, 1940. 6. 9~10. 《中國抗日戰爭時期 大後方文學書系 理論·論爭 第一集》, 蔡儀 主編, (重慶: 重慶出版社, 1989), 278쪽.

알지는 못했었다.

대부분 동지들의 말로 부터서야 나는 그것이 아직 건립을 기다리는 한층 중국화한 문학의 형식[입음]…… 알게 되었다.²³⁾

그의 이 말은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미완성의 보다 중국화한 문학형식’이라는 의미로서 민족형식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인즉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어 있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글에서 何其芳 자신은 민족형식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은 누구도 신문학이 한층 중국화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리 없고, ……우리들은 누구도 신문학이 한층 대중화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리 없으며……”²⁴⁾라면서 이를 신문의예의 중국화 대중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다음 인용문들에서 보다시피 郭沫若·艾靑·潘梓年 등 민족형식에 대해 何其芳과 유사한 방식으로 파악한 사람들은 상당수에 이르렀다.

‘민족형식’은 [소련과는] 그 뜻이 다소 다르다. 여기서는 ‘중국어’ 혹은 ‘대중화’의 동의어일 따름이며 목적은 민족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내용의 보편성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사상이건 학술이건 문예이건 혹은 그 외 무엇이건 간에……²⁵⁾(郭沫若)

민족형식에 대한 나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즉 중국화와 같은 뜻이고, 소위 중국화란 과학화의 현대어로 어떤 시점에서 파악한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거죠.²⁶⁾(艾靑)

민족형식 문제는 곧 중국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중화 문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 —최소한 일반 인민의 문화수준이 이처럼 낙후한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비록 민족형식 문제와 대중화 문제가 커다란 그리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²⁷⁾(潘梓年)

물론 ‘민족형식’에 대한 이들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23) 〈文學上の民族形式〉, 《文藝戰線》創刊號, 1939. 11. 16. 《文藝戰線 選輯》, 246쪽.

24) 앞과 같음.

25) 〈‘民族形式’商兌〉,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278쪽.

26) 〈民族形式座談筆記〉, 《新華日報》, 1940. 7. 4.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294쪽.

27) 〈民族形式與大衆化〉, 《延安文藝叢書 文藝理論卷》, 722쪽.

何其芳과 郭沫若是 신문의 민족화 대중화로 파악하고 있으나 艾青은 대중화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潘梓年是 민족형식 문제가 비록 대중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인정하지만 민중의 수준이 아직 저급하여 성공적인 민족형식이라고 해서 모두 민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중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민족형식을 보다 중국화 대중화된 신문의 형식으로 간주한 점은 동일하였던 것이다.

신문에와 관련하여 민족형식을 파악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들과 같으나 이들에 비해 胡風은, “구체적인 생동적 형상을 통해 즉 중국작품과 중국기품을 통해 성공적으로 특정단계의 민족현실을 반영하였다면 자연히 민족적 형식이다”²⁸⁾라면서, 특정단계의 민족현실을 중국인민의 감정표현 방식·사유표현 방식·생활인식 방식에 의해 성공적으로 반영한다면 그것이 곧 민족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²⁹⁾ 이러한 胡風의 주장에 대해 羅蓀과 茅盾 역시 다음과 같이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엇이 ‘민족형식’인가? 그것은……민족의 언어·풍습·특성……등등으로 금일의 정치·신경제적 관념 의식을 반영한 형식이다.³⁰⁾(羅蓀)

‘민족형식’의 옳은 해석은 분명, 현대 중국 인민대중의 삶에 뿌리박아 중국 인민대중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예술형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소위 익숙하다는 것은 당연히 문예작품의 용어·구법·사상 표현의 형식으로부터 기타 형상을 구성하는 음조·색채 등등을 두고 하는 말이며, 여기서 소위 친근하다는 것은 마땅히 작품 중의 생활습관·향토색·인물의 소리 용모 행동거지 등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³¹⁾(茅盾)

28) 〈論民族形式問題的實踐意義〉, 《理論與現實》, 第2卷 第3期, 1941. 1. 15. 《胡風評論集》中, 李昕·毛承志 責任編輯,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275쪽.

29) 胡風의 주장은, 특정단계의 민족현실(여기서는 항일전쟁기의 중국의 새로운 현실)을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이를 현실주의적 수법으로 정확히 표현해낸다면 곧 민족형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의 민족형식이란 어느 시기에든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정불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변화 발전해가는 것이었다. 반면에 葛一虹의 경우에는 신문에 형식이 이미 민족형식이라고 전제함으로써 민족형식은 이미 기성의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

30) 〈論爭中的民族形式‘中心源泉’問題〉,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411쪽.

이처럼 신문예와 관련하여 민족형식을 파악하려면 이들과는 달리 민족형식 문제를 구형식, 즉 민간형식과 관련하여 파악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陳伯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근래 문예상의 이른바 ‘구형식’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말하자면 민족형식문제이다.³²⁾

또 向林冰의 경우에도, “‘민족형식’이 현재로서는 아직 기성의 존재는 아니며” “물론 아직은 현재의 민간형식이 민족형식은 아니다”라면서도, “즐거 보고 듣는 것’은 마땅히 ‘늘 보고 듣는 것’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내세워, “민간형식은 한편으로는 민족형식의 대립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민족형식의 동일물이다”라고 주장하였다.³³⁾

이상과 같이 민족형식이란 용어에 대하여 ‘아직 미완성의 보다 중국화한 문예형식’이나 민간형식 혹은 이의 발전된 형식이나 하는 등의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민족형식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문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문학작품의 내용은 곧 작품 중에 반영된 작가가 심미 평가한 사회생활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구성요소는 제재·사상·주제·인물·환경·스토리 등등이며, 문학작품의 형식은 내용의 내부구조와 구체적 수단으로 그것의 구성요소는 구조·언어·체재 등이다”³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민족형식’이란 복합명사에서의 ‘형식’이란 말에 대하여 각자 나름의 용법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자연 민족형식이란 용어의 개념 파악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31) 〈抗戰期間中國文藝運動的發展〉, 《中蘇文化》第8卷 第3,4期 合刊, 1941. 4. 20. 《茅盾文藝雜論集》下, 張遠民 責任編輯, (上海: 上海出版社, 1981), 897쪽.

32) 〈關於文藝的民族形式雜記〉, 《文藝戰線》第1卷 第3期, 1939. 4. 16. 北京師大中文系 現代文學教學改革小組 編, 《中國現代文學史參考資料》,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59), 726쪽.

33) 〈論‘民族形式’的中心源泉〉, 《大公報》, 重慶, 1940. 3. 24.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198~200쪽.

34) 北京師大 中文系 文藝理論教研室 編, 《文學概論》上,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4. 12), 65쪽.

이 점에 관해서 胡繩은 당시 “우리들은 우선 민족형식의 의미를 확정해야만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바 형식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만일 형식이 체재를 지칭하며 따라서 민간형식을 언급할 때 오경조五更調·장회체章回體를 연상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 형식은 마땅히 광의의 것으로서 언어·정감·제재 및 표현방법·서술방법 등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³⁵⁾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向林冰은 “소위 ‘현 병’이란 대중언어로부터 만들어진 민간문체이다”³⁶⁾라고 말하였으며, 蕭三 역시 〈시가의 민족형식을 논함〉에서 시종 형식을 체재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는 등, 형식을 단순히 문체나 체재로 간주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光未然은 “형식(현 병)에 대한 협의의 관점이 대단히 그릇되었다.……기실 ‘문체’ 혹은 ‘체재’는 형식을 구성하는 재료 중의 하나에 불과할 따름으로 그 자체가 결코 형식과 같을 수는 없다”³⁷⁾라며 비판을 가하였다. 또 潘梓年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이어서, 형식에는 외형식과 내형식이 있는데 제재와 체재는 모두 문예의 내형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제재가 체재보다도 내용과 한층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서, “민족형식은 주로 마지막에 말한 바의 내형식[제재]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구형식의 운용·현 병에 새 술 넣기 등등은 단지 체재를 두고 하는 말일 뿐이다”³⁸⁾라고 하기도 하였다.

한편 光未然은 “그렇다. 민족형식의 창조란 최후에는 역시 일종의 민족풍격을 표현해내기 위해서이다”라 하면서도, “그러나……풍격은 결코 형식과

35) 〈文藝的民族形式問題座談會〉, 《文學月報》, 第1卷 第5期, 1940. 6. 15.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227~228쪽.

36) 〈民間形式的運用與民族形式的創造〉, 《中蘇文化》 第6卷 第1期, 1940. 4. 1. 光未然, 〈文藝的民族形式問題〉, 《文學月報》 第1卷 第5期, 1940. 5. 15에서 재인용.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243쪽.

37) 〈文藝的民族形式問題〉, 《文學月報》 第1卷 第5期, 1940. 5. 15.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243쪽.

38) 〈新文藝民族形式問題座談會上潘梓年同志的發言〉, 《新華日報》, 1940. 7. 4~5. 北京大學 外 中文系 中國現代文學教研室 主編, 《文學運動史料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79), 480쪽.

같은 것은 아니며, 더더욱 그것이 형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³⁹⁾라며 형식이란 말을 풍격으로 해석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이에 반해 羅思의 경우에는 “형식에 있어서(작품과 기교에 있어서)”⁴⁰⁾운운하면서 형식을 작품과 기교로 여겼다. 심지어 賀綠汀의 경우에는 “이른바 ‘민족형식’이란 음악방면에서 말한다면 마땅히 일종의 ‘풍격’이지 일종의 형식은 아니다”⁴¹⁾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이상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논쟁에 참가한 각 논자들은, 민족형식이란 용어에 대하여 아예 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임의의 개념을 부여하거나 하였는데, 이는 논쟁의 진행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즉 민족형식에 대한 이들의 언급은, 민족형식이란 “각 민족의 문학이 그 민족의 사회생활을 표현하는 장기적 과정 중에 차차로 형성한 그 민족의 특성을 지닌 독특한 예술형식이다. 문학의 민족형식은 주로 언어에서 표현된다.……그 의 구조·체제 및 예술수법에서 표현된다”⁴²⁾라는 오늘날의 민족형식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다.⁴³⁾ 그러나 이상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민족형식이란 일반적으로는 새로

39) 〈文藝的民族形式問題〉,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240쪽.

40) 〈論美術上的民族形式與抗日內容〉, 《文藝戰線》第1卷 第5期, 1939. 11. 16. 《文藝戰線 選輯》, 239쪽.

41) 〈抗戰音樂的歷程及音樂的民族形式〉, 《中蘇文化》抗戰三周年紀念特刊, 1940. 《延安文藝叢書 文藝理論卷》, 691쪽.

42) 西北師範學院 中文系 文藝理論教研室 編, 《簡明文學知識辭典》,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85. 10), 5쪽.

43) 기실 이는 단순히 민족형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형식이 왜 제기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파악이 서로 달라서 일어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형식에 관한 潘梓年이나 胡繩의 해석은, 제재를 형식의 한 요소로 간주한 것에서도 보듯, 민족형식의 문제를 단순히 문예의 형식문제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문예의 내용문제와도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곧 민족형식 논쟁의 핵심은 ‘민족적인 문예의 형식’보다도 ‘민족적인 문예’에 그 목포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며, 이런 의미에서 ‘민족형식’이란 구호는 적절치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논쟁발생의 동인〉에서 다시 다루겠으며, 당시의 논쟁 참가자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주 49)에서 인용한 胡風의 다소간 비판적인 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은 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민족적 문예형식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논자들 중 상당수는 ‘오사 이래 신문예(특히 혁명문예)의 보다 중국화한 형식’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듯하며, 이는 신문예의 외래적 결합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중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신문예의 민족화·대중화를 달리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문예의 서방화적인 결합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문예의 민족화·대중화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항일전쟁 발발 이전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곧 30년대 문예대중화운동의 과정에서 그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서 구형식의 이용까지 포함하여 신문예의 민족화 대중화문제가 이미 거론되었던 때문이다. 이에 따라 葛一虹은 “비록 새로운 구호이기는 하지만 기실은 오랜 과제이다”⁴⁴⁾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이 시기에 와서 민족형식이란 명의회에 다시 제기되었으며 이전의 논의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인가 한다.

五. 논쟁 발생의 동인

전술한 바 항전발발 이후 전개된 중국의 새로운 현실은 비단 毛澤東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항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중의 역량이 결정적이었으므로 민중의 역할·민중의 능력·민중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사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항전 초기의 급박한 전황으로 당장 민중동원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며, 민중의 역량 발휘는 그들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에 의할 때 가장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민중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문예 방면에서는 문예를 민중교육·민중동원의 직접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아지프로적인 작품이 양산되었다. 이들 아지프로적 작품의 양산

44) 〈關於民族形式〉, 《文學月報》第1卷第2期, 1940. 2. 15.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196~197쪽.

은 신문에 속하는 전지통신·보고·가두극·가두시·낭송시 등으로도 이루어졌지만 특히 ‘문장을 시골로文章下鄉·문장을 부대로文章入伍’라는 구호하에 주로 각종 민간문예 형식을 이용한 가요·강창문학·희곡·통속소설 등 통속작품의 대량창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중국민중의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데다 오랜 기간 민간문예 형식에 익숙해 있었던 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지프로적 작품의 창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신문에적 작품은 오사 시기 이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결과 농민이 절대다수를 점하는 중국민중과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함으로써 그 수용에 한계를 나타나게 되었다.⁴⁵⁾ 반면에 주로 구형식을 이용한 통속작품은 비록 비교적 중국민중의 환영을 받아 일정한 선전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하였지만, 민중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민간문예에 비해서는 보다 흥미가 덜한 약점을 지녔던 데다가 작가의 입장에서는 예술적 가치면에서 회의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 병에 새 술 넣기’ ‘구형식 신내용’ 등의 구호가 보여주듯 문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무시한 구형식의 이용이 일으킨 근본적인 고민이었다. 항전초기 통속작품의 창작을 문예가로서 자신의 임무라고 여기고 이에 진력했던 老舍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 병에 새 술 넣기는 이 당시 내게 강렬한 유혹을 주었는데, 나는 이것이 항전 선전의 가장 예리한 무기라고 여겼으며……, 나는 당시 단지 이같은 한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따름으로, 구형식은 하나의 고정된 틀로서 오직 당신이 비슷하게 배우기만 한다면 곧 쓸모가 있을 것이고……, 나중……이 새로운 현실을 현 병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⁴⁶⁾

45) 林煥平, 〈新文學與舊形式〉, 《抗戰文藝評論集》, (香港: 民革出版社, 1939. 10), 22쪽.

46) 〈一九四一年文藝趣向의展望〉, 《抗戰文藝》第7卷第1期, 1941. 1. 1. 文天行外編,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資料選編》, (成都: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3), 172쪽.

이러한 회의와 고민의 해결을 위해 문예계에서는 구형식 이용의 실천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병행하였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형식의 토론은 상당기간 구형식 이용의 타당성 여부 확인 정도에만 머물러 있을 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였다.

1938년 상반기에 이르러 전쟁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항전 초기의 고조된 감정이 차차로 가라앉고 차츰 냉정을 되찾게 되자, 작가들은 이제 그간의 선전적 작품의 양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문예 자체의 예술적 요구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시적인 제한된 경험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중국의 실제 현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갖게 된 현실체험의 심화와 민족전쟁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가져다 준 민족의식의 고양은, 구형식의 이용을 중심으로 한 일시적인 아지프로적 통속작품에 대하여 문예의 민족적 전통 흡수라는 측면에서 그 예술적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이와 더불어 도시적이고 서방적인 문학혁명 이래의 신문예와는 다른 새로운 문예의 창작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새로운 현실을 성공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민중에게 수용될 수 있는, 말하자면 ‘민족문예’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예의 건립을 요구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예운동의 방향설정이 절실한 과제로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민족형식’이라는 구호가 출현하였고 결국 이 구호하에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⁷⁾이 점에 대하여 茅盾과 胡風은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초 ‘민족형식’이 없어서는 아니되겠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때문은 아니었고……, 그들이 ‘대중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작업을 전개해

47) ‘민족문예’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국민당 계열의 문인들에 의해 30년대 이래 ‘민족주의 문예’라는 용어가 이미 쓰여지고 있었던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이 점은 宗珪가 <문예의 민족형식 문제의 전개>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아직 ‘문예의 민족형식’이 명사를 확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토론한 바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나는 이처럼 해석하였으니 : 민족문예(당시의 잠정적 이름)가 기왕 민족주의 문예가 아닌 바에는 그렇다면……”(《文藝之民族形式問題的展開》, 《大公報文藝》, 香港 : 1939. 12. 12~13.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 189쪽)

갈 때 작업 실천으로부터 그러한 일종의 일반 백성이 ‘즐거 보고 듣는’ 작품과 기풍이 없어서는 아니됨을 느끼게 되었던 때문이었다.⁴⁸⁾(茅盾)

깊이있게 통일전선적·민족전쟁적·대중본위적·생동적 민족현실을 인식(표현)하는 것 이것은 정확한 방법적·내용적 요구를 필요로 하며, 문예운동은 반드시 방법상 내용상 현실정세와 상응하는 구호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다만 방법상 내용상 요구가 보충적 설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또한 형식 방면에서 적절하게 내용이 요구하는 바 방향을 명확히 지적해 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곧 ‘민족형식’ 이 구호의 제기이다.⁴⁹⁾(胡風)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민족형식 논쟁이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여 선적적 효과와 예술적 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민족문예의 건립(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신문예의 민족화 대중화를 의미하였다)이라는 목표하에, 주로 민족형식의 창조를 중심으로 구형식 이용·신문예의 평가·문예의 형식과 내용·문예와 정치 등등을 둘러싸고 벌인 논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민족형식 논쟁은, 단순히 선전적 목적하에서만 이루어져서 비록 나중에 그 예술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아가기까지는 하였으나 새로운 현실에 상동하는 민족형식(혹은 민족문예)의 건립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던, 구형식 이용 토론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민족형식 논쟁은 결국 어느 한 사람의 제창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현대문학의 발전 추이로 보아 당시 필연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던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쟁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느 때 발생하였는가를 알아 볼 차례이다.

48) 〈戲劇的民族形式問題〉, 《抗戰文藝》第7卷第2,3期合刊, 1941. 3. 20. 《茅盾文藝雜論集》下, 872쪽.

49) 〈論民族形式問題的實踐意義〉, 《理論與現實》第2卷第3期, 1941. 1. 15. 《胡風評論集》中, 219쪽.

六. 논쟁의 발생시기

앞에서 살펴 보았다시피 민족형식 논쟁의 발생은 중국 문예 발전의 필연적 추세였다.⁵⁰⁾ 그러나 기실 민족형식의 논쟁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자료의 획득이 지난하기 때문이다.

민족형식 논쟁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관해서는 민족형식 논쟁 당시의 다수 논자들 역시 毛澤東의 〈신단계론〉을 그 기점으로 잡고 있다. 예컨대 羅蓀은 “아래에서 나는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주석을 쓰도록 하겠는데……”⁵¹⁾ 운운하면서 毛澤東의 〈신단계론〉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光未然은 1940년의 한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다소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문예상의 민족형식 구호의 제기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쳤다. 일년여 이전은 구형식 이용 문제였다. 서북 건방의 공작자들은 민중동원의 절박한 필요에 의해 종종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구형식을 이용했다. 이러한 시도는 유행을 이루었고, 서북의 루쉰예술학교魯藝·극협·문협은 이미 그 득실을 논하기 시작하였으며……나중 극협은 張庚이 〈연극민족화와 구극현대화話劇民族化與舊劇現代化〉를 썼다. 문협은 학술 중국화——문예중국화를 제기하였다. 이 구호의 제기는 지금까지 아직 진정된 귀결을 얻지 못하였는데, 아직 충분한 실천적 회담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민족형식’은 지금 문예정책의 중심 구호가 되어 화북華北에서 서북 전지 도처에서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⁵²⁾

50) 이를 알려 주는 하나의 표지로, 구형식 이용 토론의 과정에서 보이는 일부 단편적인 언급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33년 4월 26일의 七月社가 주관한 〈宣傳·文學·舊形式的利用〉이란 좌담회에서 행한 溪如나 歐陽凡海的 발언이 그러하다.

51) 《論爭中的民族形式‘中心源泉’問題》，《讀書月報》第2卷 第9期，1940.12.1.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411쪽.

52) 劉泰隆，〈試談‘民族形式’論爭的評價中的幾個問題〉，《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81年 第1輯，北京，33~39쪽에서 재인용.

光未然에 따르면 민족형식 논쟁은 ① 구형식 이용 토론 ② 연극민족화 및 문예중국화 ③ ‘민족형식’이란 구호하의 토론이라는 삼단계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劉泰隆은, 光未然的 이같은 발언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민족형식 논쟁이 1938년에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땅히 지적해야 할 것이, 光未然 동지가 구형식 이용 문제의 토론을 ‘민족형식’ 문제 토론의 첫번째 단계로 간주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민족형식’은 ‘구형식 이용’——‘연극민족화’·‘문예중국화’를 따라서 발전했다는 관점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는 1938년에 이미 ‘민족형식’ 문제의 토론이 이미 전개되었으며 문예계는 ‘연극민족화’·‘문예중국화’를 토론할 때 이미 문예의 민족형식 문제와 접촉했었음을 설명한다.⁵³⁾

光未然이 구형식 이용 토론을 민족형식 논쟁의 첫단계로 간주한 것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劉泰隆의 말처럼 동의할 수 없는 바이다. 이는 앞에서 이미 밝혔다시피 구형식 이용 토론과 민족형식 논쟁은 그 성격이 분명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劉泰隆이 光未然的 이러한 말을 근거로 민족형식 논쟁이 1938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張庚의 <연극민족화와 구극현대화>가 제기된 시기이다. 張庚의 이 글은 1939년 6월 10일에 정식 발표되었는데, 그전에 루쉰예술학교에서 행한 강연을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⁵⁴⁾ 루쉰예술학교에서의 강연 일자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張庚 자신이 이 글을 1939년에 썼다고 진술하고 있고⁵⁵⁾ 또 강연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글을 발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張庚의 이러한 주장은 대략 1939년 상반기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光未然이 말한 바 구형식 이용 토론의 시기를 그의 발언 일자로부터 역산해 볼 때 1938년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도 간접적으로 증

53) 劉泰隆, 〈談談‘民族形式’論爭的評價中的幾個問題〉,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81年 第1輯, 北京, 39쪽.

54) 《中國現代文論選》, 王永生 主編,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2), 415쪽.

55) 〈我和戲劇〉, 《中國現代作家傳略》下, (重慶: 四川人民出版社, 1983.5), 228쪽.

명이 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940년에 있었던 민족형식 관련 좌담회는 모두 네 차례로, 그 중 4월 21일의 文學月報社 주최의 좌담회와 6월 9일의 新華日報 주최 좌담회의 기록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光未然的 발언은 없다. 이 점과 劉泰隆이 光未然的 발언을 인용한 서적이 《희극의 민족형식 문제》⁵⁶⁾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光未然的 상기한 발언은 아마도 6월 25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戲劇春秋社 주최의 좌담회에서 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光未然이 말한 바 “일년 여 이전一年多以前”의 구형식 이용 토론은 대체로 1938년 하반기나 1939년 초일 가능성이 높으며,⁵⁷⁾ 따라서 光未然이 그 다음 단계로 간주한 연극민중화와 문예중국화의 주장은 아무래도 1939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⁵⁸⁾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何其芳의 언급이다.

延安에 돌아온 이후 나는, 문예공작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동지들의 민족형식 문제에 대한 열렬한 토론에 부닥쳤다.⁵⁹⁾

당시 何其芳은, 38년 11월 19일 沙汀과 함께 루쉰예술학교 제 1기 학생들을 인솔하고 晉西北과 冀中에서의 활동을 위해 延安을 떠났다가, 39년 4월 중순에야 延安에 돌아왔다고 한다.⁶⁰⁾ 따라서 何其芳의 이 말은 그가 延安을 떠나기 전인 38년말에는 아직 민족형식 논쟁이 전개되지 않았지만 39년 상반기에 延安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열렬히 전개되고 있더라는 회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만 따르면, 결국 민족형식 논쟁이 劉泰隆이 말하는

56) 《戲劇的民族形式問題》，(桂林：白虹書店，1943.5).

57) 光未然是 劉泰隆이 인용한 좌담회와는 다른 40년 4월 21일의 한 좌담회에서, “이 민족형식 문제의 제기는 이제 곧 일년이 다 되는데 這民族形式問題的提出眼看快要一年了……”(《文藝的民族形式問題座談會》，《文學月報》第1卷第5期 1940.5.15. 《大後方文學書系 第一集》，216쪽)라고 말하였는데, 이 역시 상기한 그의 언급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58) 延安 文協의 학술중국화——문예중국화의 내용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 진전된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주 62)의 인용문에서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9) 《文學上的民族形式》，《文藝戰線 選輯》，1939.11.16. 《文藝戰線 選輯》，246쪽.

60) 易明善, 〈何其芳傳略〉, 《何其芳研究專集》, (四川文藝出版社, 1986.3), 10쪽.

대로 연극민족화나 문예중국화의 과정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毛澤東의 <신단계론> 이전으로 잡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劉泰隆의 이러한 분석은 전혀 그릇되었다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 비록 구호는 민족형식의 건립이라는 것을 사용하였지만 당시 중국의 새로운 현실을 철저히 반영해낼 수 있는 중국적인 민족문예의 건립의 필요성을 대부분의 문예종사자들이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역시 어느 한 개인의 과제 부여로 시작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에게 하나의 의미있는 시사를 던져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과거 극운 [희극운동]의 청산과 비판, 금후 극운 방향의 제시, 이 일은 1939년에 정식으로 시작하였다.⁶¹⁾ (강조점은 인용자가 가함)

張庚의 이 말은 그가 말한 바 연극민족화와 구극현대화, 즉 민족형식 문제가 1939년에 ‘정식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이 말은 혹시 그 이전에, 즉 1938년에 이미 ‘비정식으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와 관련하여 1938년 5월 25일에 발표된 延安 지역 문예종사자들의 대표 단체인 陝甘寧邊區文化界救亡協會가 행한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 가능성을 상당히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문화의 신내용新內容과 구민족형식舊的民族形式을 결합하는 것 이것은 목전의 문화운동이 가장 그 계기를 강조해야 할 문제이며, 동시에 신계몽운동과 과거 계몽운동이 상이한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소련의 각 민족문화의 위대한 발전의 경험은 이 점에 있어서 곧 우리들에게 심도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 모든 문화운동의 경험이 이미 증명한 바이니, 문화상의 구민족 형식을 경시하면 신문화의 교육은 매우 광대한 군중 속으로 침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신문화의 민족화(중국화)와 대중화 양자는 사실상 불가분한 것이다. …… 우리는 우리 문화의 신내용은 신형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다만 우리 문화의 신내용은 어떠한 낡은 여하한 형식 중에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렇

61) 張庚, <話劇民族化與舊劇現代化>, 《理論與現實》, 第1卷 第3期, 1939. 6. 10. 《中國現代文論選》第一冊, 406쪽.

지만 문화구형식文化舊形式의 최대한의 이용은, …… , 부단히 구형식이 문화 신내용의 부속물이 되도록 하여 문화신형식文化新形式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⁶²⁾ (강조점은 인용자가 가함)

비록 이 글이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상기한 인용문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몇 가지 점에서 민족형식 논쟁의 발단에 관한 약간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여태껏 毛澤東의 〈신단계론〉 이전에 이미 민족형식이라는 용어가 상당수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 글이 延安 문예계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참가하고 있는 문예단체⁶³⁾의 발언이라는 점은, 이 용어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혹시 이 글을 기초한 사람 개인의 우연적 언급이 아닌가 하는 회의는, 소련 운운하고 있는 것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즉 앞에서 이미 말한 바 민족형식이라는 용어는 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 인용문에서도 이를 뚜렷이 밝히고 있으므로, 민족형식이라는 용어가 어느 한 개인의 우연적 언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족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민족형식 논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 일반적으로 민족형식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글이라고 인정되는 몇몇 글들, 예컨대 周揚의 〈우리의 태도我們的態度〉라 艾思奇的 〈구형식운동의 기본원칙舊形式運用的基本原則〉에서도 민족형식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되풀이하자면 민족형식 논쟁의 범주는 민족형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한 주요한 지표는 될지라도 절대적은 아니라는 뜻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전술한

62) 陝甘寧邊區文藝界救亡協會, 〈我們關於目前文化運動的意見〉, 《解放》, 1938. 5. 25. 《延安文藝叢書 文藝理論卷》, 380쪽.

63) 陝甘寧邊區文化界救亡協會(약칭 ‘文協’)는 1937년 10월(일설에는 11월)에 창립되어 1939년 5월에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 延安分會(약칭 ‘抗協’)로 개명하였다. 周揚·艾思奇·陳伯達·何其芳·張庚 등 陝甘寧邊區의 대부분 문인은 물론 毛澤東·洛甫·王明 등 고위 정치인도 소속될 만큼 이 지역의 대표적 문예단체였다. 이 협회에 소속된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文協執委名單〉, 劉增杰等編, 《抗日戰爭時期 延安及抗日民主根據地 文學運動資料》上,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3), 491쪽을 참고하기 바람.

바 새로운 과제로서의 중국의 새로운 현실을 표현하는 ‘민족문예’의 건립을 제기 또는 의식하는 가운데 갖가지 문예문제를 논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보아도 위 인용문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신문화의 중국화 대중화 운운이 그러하다. 민족형식 논쟁에 참가한 일부 논자들이 민족형식 문제를 신문예의 중국화 대중화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인데, 여기서는 비록 문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관점이 상당히 흡사한 것이다. 또 구형식 이용을 통한 문화신형식의 건립을 내세우는 점 역시 그러하다. 이 글에서 ‘문화신형식’에 상대되는 말은 ‘구민족형식’이고 ‘구민족형식’에 상대되는 말로는 ‘신민족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문화신형식의 건립이란 ‘신민족형식’의 건립이라는 말의 또다른 표현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앞의 주장은 구형식 이용을 통한 민족형식의 건립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논리는 민족형식 논쟁중에 대단히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이상의 제 사항을 종합해 본다면, 光未然의 언급에 근거하여 劉泰隆이 제기한 바 민족형식 논쟁이 毛澤東의 〈신단계론〉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 논거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른 몇 가지 근거로 미루어 볼 때는 그 결론 자체는 사실에 상당히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민족형식 논쟁은, 민족형식이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늦어도 1938년 하반기에는 이미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또 그러해야만 민족형식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던 1938년 중반의 현실 상황과도 비로소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七. 맺음말

근래 우리나라 문학계에서는, 대체로 민족문학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족문학 생산주체로서의 민중은 누구인가·그 사회계층 구성은 어떠한가·또 방법상으로 당파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이른바 ‘민족문학 주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논쟁은, 문학 담당층이 지식인에서 노동자로 전이되었는가·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족문학에 있어서 지식인 작가의 위상은 어떠한가·작가와 민중의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등이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논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는 어떻게 민중의 생활을 묘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그 진정한 초점이었다라고 평가되는⁶⁴⁾ 중국 항일전쟁기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과 상통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의 민족형식 논쟁을 연구하는 것은 꽤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더구나 중국의 민족형식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바 있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문제·현실주의의 문제·문학과 선전의 문제 등등이 우리의 ‘민족문학 주체 논쟁’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족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문학의 양식에 관해서까지도 언급되고 있음⁶⁵⁾을 생각할 때

64) 白永吉, 〈‘民族形式’論爭について〉, 《文學研究科紀要 別冊 第一二集》文學·藝術學編, 早稻田大學 大學院 文學研究科, 1985年, 118쪽. 潘梓年의 경우에는, “민족형식 문제의 제기의 주요 요구는 문예활동과 항전건국이란 구체 실천의 결합이었다. 다시 말해서 공농 대중 자신의 언어로 공농 대중 자신이 독립·자유·행복을 위해 투쟁하는 전투생활을 묘사하고 동시에 공농 대중이 향수하는 바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民族形式與大衆化〉, 《延安文藝叢書 文藝理論卷》, 723쪽)라고 말할 정도였다.

65) 김지하, 〈민중문학의 형식문제〉, 김병걸·최광석 편, 《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서울: 지양사, 1985.7)·황광수, 〈80년대 민중문학론의 지향〉, 정한용 편, 《민중문학주체논쟁》, (서울: 청하, 1989.10) 등을 참고하기 바람.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껏 이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조차 아직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다룬 바 민족형식 논쟁의 발단과 毛澤東의 〈신단계론〉에 대한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毛澤東의 〈신단계론〉은 민족형식 논쟁에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毛澤東의 정치적 역량에 기대어 당시 문예의 민족화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부분적 문제제기를 결집시켜 줄 구체적 용어로서의 민족형식이란 말을 사용, 집중적으로 토론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족형식 논쟁은 어느 한 개인의 의지에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역시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자료의 제한 등으로 이 논쟁이 정확히 언제 시작하였다고 분명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毛澤東의 〈신단계론〉이 나올 무렵인 1938년 하반기에는 이미 이에 관한 토론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자료의 제시와 함께 진일보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